

고1국어
신사고

4(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학습 활동에 제시된 다양한 대화 상황을 제시한 뒤 대화의 특성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2. 교과서 본문과 관련하여 듣기·말하기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

[지문 분석]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듣기·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집단적, 개인적 특성이 모두 작용하여 각자의 말하기·듣기 방식이 형성됨.) 듣기·말하기 방식은 듣고 말하는 내용, 표현이나 말투, 상호 작용 방식 등(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예시) 어떤 사람은 시사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은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듣고 말하는 내용에 따른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 정중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의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표현에 따른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반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상호 작용에 따른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 이처럼 듣기·말하기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질문을 통해 이어질 글의 내용을 암시함.)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개인적 특성(듣기·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①)(‘기질이나 성향, 성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기질이나 성향은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요소가 맞지만, 성별은 개인마다 모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선지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항상 꼼꼼히 공부하자!)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내용 전개 방식 : 예시) 기질(자극에 대한 민감성이나 특정한 유형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 주는 개인의 성격적 소질)이나 성향(성질상의 경향)에 따라 듣거나 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성장 과정(양육한 부모의 영향, 성장 과정에서 만난 주변 인물들의 영향 등)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성장 과정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이러한 개인적 특성 외에도 세대, 성별, 지역(집단적 특성의 내용)과 같은 집단적 특성(듣기·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②)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인층과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화제나 사용하는 어휘, 표현 등이 서로 다른 경우(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 표현, 억양 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어휘나 억양 등에 차이(지역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

▶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이러한 상황(다양한 요소로 인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듣기·말하기 방식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 자신과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상대방의 듣고 말하는 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대화에 반영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상대방의 소통 방식을 존중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가 맞지만, 상대의 장단점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는 말할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를 말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야. 이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상대의 기분이 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이다. **가령(내용 전개 방식 : 예시)** 특정 지역의 방언이 표준어가 아니라고 하여 고쳐야 한다거나, 말투가 낮설다고 하여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듣고 말하는 방식을 존중하고자 노력(듣기·말하기 방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을 존중하는 것의 긍정적 효과)이 된다.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식을 존중한 것으로 인한 효과)될 수 있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내용 전개 방식 : 인과)

▶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

그렇다면 다양성(모양, 빛깔,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질문의 방식을 통해 설명할 대상을 소개) 첫째,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언어적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다양성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①) 언어적 민감성이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성향(내용 전개 방식 : 정의)을 말하는데,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듣기·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말에 담겨 있는 생각과 느낌을 파악해 보는 것(언어적 민감성을 기르는 방법)이 좋다.

둘째,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다양성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②) [자신의 듣기·말하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이를 성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식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내용 전개 방식 : 인과)]([]: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 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 인식 및 성찰의 효용성)(‘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사람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이를 바라게 돼. 심할 경우에는 자신의 소통 방식을 강요할 수도 있지. 이는 모두 인간의 타고난 본성 중 하나인 자기 중심적 태도 때문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통 방식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식 및 수용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이다.

셋째,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다양성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③)(‘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말하는 상황이 공식적인지 비공식적(말투가 달라지는 상황)인지에 따라 적절한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말의 목적이 정보의 교환에 있는지, 문제 해결에 있는지, 사회적 관계 유지에 있는지에 따라(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 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같은 내용이나 표현도 다른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언어생활에서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대화의 이론 자체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약화되었으며, 출제된 문제의 난도도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문 분석] 학습 활동

① 영호와 윤석의 대화

영호: 안녕? 나는 김영호야. 우리 같은 동아리니까 친하게 지내자. (적극적인 태도)

윤석: 응..... (소극적, 단답형)

영호: 그게 다야? (적극적인 자신과 달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대의 태도로 인한 반응) 네 이름은 뭐니?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려 함.)

윤석: 김윤석. (단답형 대답을 이어감.)

영호: 윤석아. 나는 1반인데 너는 몇 반이야? (상대의 단답형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함.)

윤석: 3반. (단답형 대답을 이어감.)

영호: 혹시 나랑 말하는 게 불편해? (상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마음이 상했음.)

윤석: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낮을 가리는 편 (윤석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이유, 개인적 특성) ('두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른 것은 집단적 특성의 다양성 때문이라 볼 수 있겠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대화의 내용상 영호는 외향적 성격, 윤석은 내성적 성격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성격은 특정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향적, 내성적과 같은 성격의 차이는 존재하니까! 게다가 대화의 내용상 둘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으니 연령은 같고 관심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따라서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둘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이라서.....

[영호의 속마음 : 재는 왜 기분 나쁘게 사람을 앞에 두고 싫은 티를 내지?

윤석의 속마음 : 재는 왜 처음 보는 사이인데 저렇게 친한 척을 하지?] ([]: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여 기분이 상하고 오해가 생겼음.) ('영호와 윤석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서로 기분이 상한 것 같아.'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기서 '영호'가 한 오해는 윤석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윤석'이 한 오해는 처음 보는 사이에 너무 친한 척을 한다고 여기는 것이야.)

(금년도에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

② 은기와 경민의 대화

은기: 경민아, 어떡해. 큰일 났어.

경민: 왜? 무슨 일이야?

은기: 지갑을 잃어버린 것 (문제 상황)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경민: 왔던 길은 다시 가 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은기: 다시 가 봤는데 없었어.

경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안 나? 가방은 찾아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은기: 벌써 찾아봤지. 근데 없어.

경민: 우선 학생증 재발급 신청하고, 지갑을 주운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벽보를 붙여 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은기: 정말 속상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경민이 자신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해주고 자신을 위로해 주길 바라며 한 말)

경민: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가방에 넣어 두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

너든지 해서 잘 보관했어야지. 앞으로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은기가 기대한 위로와 공감에 아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올바른 지갑 간수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경민)('경민은 은기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대화의 내용을 보면 경민이는 은기가 '정말 속상해'와 같은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충고를 하고 있지? 이는 문제 해결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화인데, 이런 태도는 설령 경민의 말이 맞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아. 좋은 말도 적절한 때에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은기: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경민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음.)('은기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민이 도움을 주지 않고 질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은기가 기분이 상한 이유는 경민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야! 게다가 대화의 내용상 '내가 ~을 해줄 게.'라고 경민이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갑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앞으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경민이는 은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경민: 응? 갑자기 왜 화를 내? (상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에 상대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경민이는 은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대기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경민이는 은기가 화를 내니까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반응의 근거는 경민이도 은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다만, 은기는 자신의 상황을 위로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경민이는 위로나 공감보다는 충고와 조언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 대화는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대화야! 은기와 경민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대화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

③ 성별에 따른 말하기 방식의 차이

견해 1: 말하기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예시) 남성은 비교적 문제 해결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 (남성 말하기 방식의 특징, 대화 행위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김.)하는 반면에, 여성은 비교적 관계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 (여성 말하기 방식의 특징, 대화 행위에 대해 감정을 소통함으로써 협력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김.)한다. 남녀 간의 의사소통 갈등은 이러한 말하기 방식의 차이 (남녀 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성별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견해 2: 말하기 방식은 개인적 특성이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 성별과 같은 집단적 특성이 아니다. 관계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하는 남성도 있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하는 여성도 있다. (말하기 방식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보는지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지가 성별이라는 집단적 특성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근거)

▶ 개인적 특성이거나 상황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성별에 따른 말하기 방식은 금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없어. 이는 갈수록 성적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도 관련이 깊어. 그러나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해는 해두는 것이 좋아!)

④ 소연, 엄마, 할아버지의 대화

엄마 : 소연아, 친구 생일 선물은 무엇으로 할지 정했니?

소연 : [생선(생일 선물)은 문상(문화 상품권)이 최고죠!]([]:어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행어를 사용함.)

엄마 : 갑자기 웬 생선? 그리고 문상을 간다고? 누가 돌아가셨니?('생선'은 '먹기 위해 잡은 신선한 물고기'로, '문상'은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함. 또는 그런 위문'으로 이해함. 청소년 사이의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함.)('개인적 특성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이 대화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청소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행어 때문이라는 것은 다들 이해할 수 있지? 그렇다면 '청소년층'이 과연 개인을 이르는 말일까? 아니라는 것을 알겠지? 이 문제는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을 '소연'이라는 개인의 특성으로 순간 잘못 생각한 친구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야. '청소년층'은 '세대' 즉,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10대라는 집단을 의미하는 말이니 이를 잘 이해하도록 하자!)

소연 : [생일 선물로 문화 상품권을 준다고요. 참, 저 내일 버카충(버스 카드 충전)하게 만 원만 주세요.]([]: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유행어를 계속해서 사용함.)

엄마 : 버카충? 처음 듣는구나. 그건 무슨 벌레니?('버카충'의 '충'을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해함.)

소연 : 아이 참, 버스 카드를 충전한다는 말이에요.

엄마 : 안녕하세요, 어르신.

소연 :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 모녀가 정답게 집에 가는 길인가 보구먼.(예스러운 말투)

엄마 :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이세요?

할아버지 : [고등어를 한 손(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사 오는 길이네. 자네 춘부장(樞府丈)(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께서는 강녕(康寧)(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하십니까?]([]:청소년층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고유어나 한자어를 많이 활용함.)

소연 : 한 손? 춘부장? 강녕? 대체 다 무슨 말이지?(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소연은 청소년층이라는 세대를, 할아버지는 노년층이라는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 대화에서는 금년도에 엄마와 소연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어! 소연은 유행어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층을, 엄마는 청소년층의 유행어를 알아듣지 못해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느끼는 어른 세대를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옳을 것 같아! 또한 '유행어'가 사회방언이라는 것을 묻는 문제도 있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해!)

⑤ 남자(칠봉)과 여자(나정)의 대화

칠봉 :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표준어를 사용함.)

나정 : 맞나?(경상도 방언을 사용함. '맞나'는 경상도 지역에서 '정말이니, 진짜니, 그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임.)('각자 살아왔던 지역 간에 사용하는 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이 대화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 것은 '맞나'라는 말에 대해 칠봉은 표준어의 의미로, 나정은 경상도 방언의 의미로 이해하고 쓰고 있기 때문이야! 이는 지역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인 지역 방언으로 인한 현상이지!)

칠봉 : 뭘 자꾸 '맞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맞나'를 표준어

의 의미인 '그렇다' 또는 '옳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의문형으로 이해함.)('말하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오해를 했기 때문이야.'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물론 대화 주체의 성별이 다른 것은 맞지만, 제시된 대화에서 소통이 원활히 되지 못한 이유는 성별적 요소와는 관련이 없어!)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나정 : 맞나?

철봉 : 하하하하하.

나정 : 니 지금 나 놀리는 기지?

(금년도에 이 대화를 활용하여 표준어와 방언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어!)

⑥ '춘향전'의 한 장면

[앞부분의 줄거리]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남원에 내려오던 이 도령은, 농부들을 만나 춘향에 대해 묻는다. 그들로부터 춘향이 정절을 지키느라 사또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지도 않은 다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 간다.

["저 농부 여보시오. 검은 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양반인 이 도령이 농부에게 낮춤말을 사용함.)] ([]:'검은 소'와 '컴컴하다'를 연관한 엉뚱한 질문)

농부가 대답하되

"그러기에 밝으라고 벗*(이 도령의 엉뚱한 질문에 농기구 '벗'과 발음이 비슷한 '해가 내리쬐는 기운'을 의미하는 '별'을 활용하여 대답함.) 달았지요.(상민인 농부가 이 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함.)"

["벗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양반인 이 도령이 농부에게 낮춤말을 사용함.)] ([]:농부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대답을 이해하고 말장난을 이어가는 질문)('어사가 언어유희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아 언어유희는 당시 양반 계층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물론 이 도령이 농부의 재치 있는 답을 금방 이해하고 다시 말장난을 이어가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당대 모든 양반들이 이와 같은 언어유희를 주로 사용했는지를 드러내지는 않아. 이처럼 언뜻 맞을 것 같지만, 제시된 글의 내용상 뚜렷하게 맞거나 아니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지는 항상 주의해야 해!)

"덧기에 성엷*(이 도령의 엉뚱한 질문에 동음이의어인 농기구 '성에'와 '기온이 영하일 때 유리나 벽 따위에 수증기가 허옇게 얼어붙은 서릿발'을 의미하는 '성에'를 활용하여 대답함.)장 달았지요.(상민인 농부가 이 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함.)"

["성엷장 달았으면 응당 차지?(양반인 이 도령이 농부에게 낮춤말을 사용함.)('어사는 농부에게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모두 사용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어.'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기서 '어사'는 이 도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선 알아둬야 하고, 이 도령이 하는 말은 이 부분까지만 드러나는데 보면 계속해서 낮춤말만 사용하고 있지? 따라서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돼!)] ([]:농부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대답을 이해하고 말장난을 이어가는 질문)

"차기에 소에게 양지머리*(이 도령의 엉뚱한 질문에 동음이의어인 소의 신체 부위 '양지머리'와 '별이 바로 드는 곳'을 의미하는 '양지'를 활용하여 대답함.)('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응수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농기구나 소의 신체로서 풀어져 있는 의미 말고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우선 '컴컴하지 아니한지?'에 대해 농기구 '벗'을 통해 답한 것은 '벗'이 발음상 햇빛을 의미하는 '별'과 비슷하다는 것 노린 대답이야. '더우려니?'는 별이 쬐면 더워지는 현상을 활용한 질문이고, 이에 대해 농기구 '성에'를 통해 답한 것은 서리를 의미하는 동음이의어 '성에'를 활용한 대답이야. '차지?'는 성에로 인해 차갑지

않은지를 묻는 질문이고, 이에 대해 소의 신체 '양지머리'를 통해 답한 것은 햇빛이 드는 따뜻한 곳을 의미하는 동음이의어 '양지'를 활용한 대답이야. 각 단어가 어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어휘 공부(뒷받침되어야겠지?) 있지요. (상민인 농부가 이 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함.)"

이렇듯 수작(말장난)할 때, 한 농부가 달려들며 이르되

"우스운 자식 다 보겠다. [얻어먹는 비렁뱅이 (한 농부가 이 도령에게 화를 낸 이유, 이 도령을 양반이 아닌 거지로 여김.) 녀석이 반말 짓거리가 웬일인고?] ([]:나이가 어린 거지가 나이가 많은 농부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났음.) 저런 녀석은 근중(斤重)*을 알게 (문맥상 언어 예절을 의미함.) 혀를 뿌리째 빨까 보다."

그중의 늙은 농부가 달려들며 말하기를

"아서라, 애, 그런 말 마라. 그분(이 도령)을 자세히 뜯어보니, 물골은 비록 허술하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 (늙은 농부가 거지꼴을 한 이 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한 이유)(‘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 질서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다르게 사용된 것 같아.’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기서 단순한 나이로만 따지면 아마도 ‘늙은 농부 > 한 농부 > 이 도령’ 순서가 될 거야. 그렇지만 이 도령은 농부들보다 높은 신분인 양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늙은 농부도 이 도령을 양반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어린 이 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도포 자락이 아주 맹물은 아니로다. (초라한 물골이지만 은근한 기품이 느껴짐.) 저런 사람이 어사 (조선 시대에,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관의 처적과 비위를 탐문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 같아서 무서우니라."

* 벗: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솟조각.

*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 양지머리: 1. 소의 가슴에 붙은 뼈와 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쟁기 술의 둥글고 삐죽한 우두머리 끝.

* 근중: 언행 등이 무게가 있음.

(매년 이 대화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데,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을 신분제 사회라는 당대 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질문과 대답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

고1국어
신사고

4(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듣기·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____, ____ 특성이 모두 작용하여 ____의 말하기·듣기 ____이 ____됨.) 듣기·말하기 방식은 듣고 말하는 내용, 표현이나 말투, 상호 작용 방식 등 (____ 측면에서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____) 어떤 사람은 시사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은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____에 따른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 정중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의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____에 따른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반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____에 따른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 이처럼 듣기·말하기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____을 통해 ____ 글의 ____을 ____함.)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개인적 특성 (듣기·말하기 방식에 ____을 주는 ____)(기질이나 성향, 성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____이나 ____은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요소가 맞지만, ____은 개인마다 모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선지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항상 꼼꼼히 공부하자!)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용 전개 방식 : ____) 기질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나 특정한 유형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 주는 ____의 ____)이나 성향 (____의 ____)에 따라 듣기나 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성장 과정 (양육한 ____의 영향, 성장 과정에서 만난 ____들의 영향 등)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다.] ([]: '성장 과정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이러한 개인적 특성 외에도 세대, 성별, 지역 (____ 특성의 내용)과 같은 집단적 특성 (____ 방식에 영향을 주는 ____)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인층과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화제나 사용하는 어휘, 표현 등이 서로 다른 경우 (____ 간 의사소통 방식의 ____)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 표현, 억양 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____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____)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어휘나 억양 등에 차이 (____ 간 의사소통 방식의 ____)가 있다.

▶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이러한 상황 (다양한 요소로 인한 ____가 ____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 자신과 ____ 의사소통 ____을 ____할 줄 아는 자세) ('상대방의 듣고 말하는 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대화에 반영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상대방의 소통 방식을 존중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가 맞지만, 상대의 ____을 ____한다는 것은 '너는 말할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를 말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야. 이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상대의 ____이 ____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이다. **가령(내용 전개 방식 : _____) 특정 지역의 방언이 표준어가 아니라고 하여 고쳐야 한다거나, 말투가 낮설다고 하여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듣고 말하는 방식을 존중하고자 노력(듣기·말하기 방식에 있어서 _____ 태도)**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을 존중하는 것의 _____ 효과)**이 된다.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_____의 듣기·말하기 방식을 _____한 것으로 인한 _____)**될 수 있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내용 전개 방식 : _____)**

▶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

그렇다면 **다양성(모양, 빛깔,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_____ 특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_____의 방식을 통해 _____할 _____을 _____) 첫째, (_____를 나타내는 _____) 언어적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 (_____을 _____하며 의사소통하는 _____) 언어적 민감성이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성향(내용 전개 방식 : _____)을 말하는데,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듣기·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말에 담겨 있는 생각과 느낌을 파악해 보는 것(_____을 기르는 방법)**이 좋다.**

둘째, (_____를 나타내는 _____) 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_____을 _____하며 의사소통하는 _____) [자신의 듣기·말하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이를 성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식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내용 전개 방식 : _____)] ([]: _____의 듣기·말하기 _____을 _____하고 _____해야 하는 _____) 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 _____ 및 _____의 _____)('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사람은 모두 _____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이를 바라게 돼. 심할 경우에는 자신의 소통 방식을 _____할 수도 있지. 이는 모두 인간의 타고난 본성 중 하나인 _____ 태도 때문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통 방식을 _____하고 타인과의 _____를 인식 및 _____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이다.**

셋째, (_____를 나타내는 _____)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_____을 _____하며 의사소통하는 _____)('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말하는 상황이 공식적인지 비공식적(_____가 달라지는 상황)인지에 따라 적절한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말의 목적이 정보의 교환에 있는지, 문제 해결에 있는지, 사회적 관계 유지에 있는지에 따라(말의 _____이 달라지는 상황)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 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_____ 내용이나 표현도 다른 상황에서는 _____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언어생활에서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대화의 이론 자체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약화되었으며, 출제된 문제의 난도도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문 분석] 학습 활동

① 영호와 윤석의 대화

영호: 안녕? 나는 김영호야. 우리 같은 동아리니까 친하게 지내자. (_____인 태도)

윤석: 응..... (_____, _____)

영호: 그게 다야? (_____인 자신과 달리 _____인 반응을 보이는 상대의 태도로 인한 반응) 네 이름은 뭐니? (상대와 _____를 _____함.)

윤석: 김윤석. (_____대답을 이어감.)

영호: 윤석아. 나는 1반인데 너는 몇 반이야? (상대의 단답형에도 계속해서 _____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함.)

윤석: 3반. (_____대답을 이어감.)

영호: 혹시 나랑 말하는 게 불편해? (상대의 _____태도로 인해 _____이 _____.)

윤석: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낮을 가리는 편 (윤석이 _____태도를 보인 이유, _____적 특성) ('두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른 것은 집단적 특성의 다양성 때문이라 볼 수 있겠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대화의 내용상 영호는 _____성격, 윤석은 _____성격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성격은 특정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향적, 내성적과 같은 _____의 _____는 존재하니까! 게다가 대화의 내용상 둘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으니 연령은 같고 관심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따라서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둘은 _____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이라서.....

[영호의 속마음 : 재는 왜 기분 나쁘게 사람을 앞에 두고 싫은 티를 내지?

윤석의 속마음 : 재는 왜 처음 보는 사이인데 저렇게 친한 척을 하지?] ([]:서로의 _____을 _____하지 _____기분이 _____가 생겼음.) ('영호와 윤석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서로 기분이 상한 것 같아.'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기서 '영호'가 한 오해는 윤석이 _____과 _____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윤석'이 한 오해는 _____보는 사이에 너무 _____척을 한다고 여기는 것이야.)

(금년도에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

② 은기와 경민의 대화

은기: 경민아, 어떡해. 큰일 났어.

경민: 왜? 무슨 일이야?

은기: 지갑을 잃어버린 것 (_____)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경민: 왔던 길은 다시 가 봤어? (문제를 _____하고자 하는 태도)

은기: 다시 가 봤는데 없었어.

경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안 나? 가방은 찾아봤어? (문제를 _____하고자 하는 태도)

은기: 벌써 찾아봤지. 근데 없어.

경민: 우선 학생증 재발급 신청하고, 지갑을 주운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벽보를 붙여 봐. (문제를 _____하고자 하는 태도)

은기: 정말 속상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경민이 자신의 _____마음에 _____해주고 자신을 _____해 주길 바라며 한 말)

경민: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가방에 넣어 두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

너든지 해서 잘 보관했어야지. 앞으로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은기가 기대한 ___와 ___이 아닌 상대의 ___을 ___하며 올바른 지갑 간수 방법에 대해 ___하는 경민)('경민은 은기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대화의 내용을 보면 경민이는 은기가 '정말 속상해'와 같은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___를 하고 있지? 이는 문제 해결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화인데, 이런 태도는 설령 경민이의 말이 ___바람직하지 않아. 좋은 말도 ___에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은기: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자신의 마음을 ___경민의 태도에 ___이 상했음.)('은기는 자기에 대해 닦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민이 도움을 주지 않고 질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은기가 기분이 상한 이유는 경민이가 자신의 ___을 ___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___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___! 게다가 대화의 내용상 '내가 ~을 해줄 게.'라고 경민이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갑을 찾기 위한 다양한 ___을 제시하고 앞으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경민이는 은기의 ___를 ___하는 데 도움을 ___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경민: 응? 갑자기 왜 화를 내?(상대의 ___가 ___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___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에 상대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___있음.)('경민이는 은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대기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경민이는 은기가 화를 내니까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반응의 근거는 경민이도 은기를 ___마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다만, 은기는 자신의 상황을 위로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경민이는 ___나 ___보다는 ___와 ___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 대화는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대화야! 은기와 경민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대화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

③ 성별에 따른 말하기 방식의 차이

견해 1: 말하기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___) 남성은 비교적 문제 해결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___말하기 방식의 ___, 대화 행위에 대해 ___를 ___으로써 협력적으로 ___를 ___해 나가는 ___으로 여김.)하는 반면에, 여성은 비교적 관계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___말하기 방식의 ___, 대화 행위에 대해 ___을 ___함으로써 ___으로 ___를 ___해 나가는 ___으로 여김.)한다. 남녀 간의 의사소통 갈등은 이러한 말하기 방식의 차이(남녀 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___이 발생하는 ___)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성별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견해 2: 말하기 방식은 개인적 특성이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 성별과 같은 집단적 특성이 아니다. 관계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하는 남성도 있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하는 여성도 있다.(말하기 방식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보는지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지가 ___이라는 ___적 특성과 관련이 ___여기는 ___)

▶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성별에 따른 말하기 방식은 금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없어. 이는 갈수록 성적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도 관련이 깊어. 그러나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해는 해두는 것이 좋아!)

④ 소연, 엄마, 할아버지의 대화

엄마 : 소연아, 친구 생일 선물은 무엇으로 할지 정했니?

소연 : [생선()은 문상()이 최고죠!]([]:어른들이 잘 알지 못하는 _____를 사용함.)

엄마 : 갑자기 웬 생선? 그리고 문상을 간다고? 누가 돌아가셨니?('____'은 '먹기 위해 잡은 신선한 물고기'로, '____'은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함. 또는 그런 위문'으로 이해함. 청소년 사이의 유행어를 _____.)('개인적 특성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이 대화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_____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행어 때문이라는 것은 다들 이해할 수 있지? 그렇다면 '청소년층'이 과연 _____을 이르는 말일까? 아니라는 것을 알겠지? 이 문제는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을 '소연'이라는 개인의 특성으로 순간 잘못 생각한 친구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야. '청소년층'은 '세대' 즉, _____을 기준으로 할 때 10대라는 _____을 의미하는 말이니 이를 잘 이해하도록 하자!

소연 : [생일 선물로 문화 상품권을 준다고요. 참, 저 내일 버카총()하게 만 원만 주세요.]([]: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_____를 계속해서 사용함.)

엄마 : 버카총? 처음 듣는구나. 그건 무슨 벌레니?('버카총'의 '____'을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해함.)

소연 : 아이 참, 버스 카드를 충전한다는 말이에요.

엄마 : 안녕하세요, 어르신.

소연 :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 모녀가 정답게 집에 가는 길인가 보구먼.(_____ 말투)

엄마 :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이세요?

할아버지 : [고등어를 한 손() 사 오는 길이네. 자네 춘부장(樞府丈)(_____)께서는 강녕(康寧)(_____)하신가?]([]:청소년층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_____나 _____를 많이 활용함.)

소연 : 한 손? 춘부장? 강녕? 대체 다 무슨 말이지?(할아버지의 말을 _____하지 못함.)('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소연은 _____이라는 세대를, 할아버지는 _____이라는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 대화에서는 금년도에 엄마와 소연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어! 소연은 유행어를 _____하는 청소년층을, 엄마는 청소년층의 유행어를 _____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느끼는 어른 세대를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옳을 것 같아! 또한 '유행어'가 _____이라는 것을 묻는 문제도 있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해!)

⑤ 남자(칠봉)과 여자(나정)의 대화

칠봉 :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_____를 사용함.)

나정 : 맞나?(_____을 사용함. '맞나'는 경상도 지역에서 '_____, _____, _____'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임.)('각자 살아왔던 지역 간에 사용하는 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이 대화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 것은 '____'라는 말에 대해 칠봉은 표준어의 의미로, 나정은 경상도 방언의 의미로 이해하고 쓰고 있기 때문이야! 이는 _____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인 _____으로 인한 현상이지!)

칠봉 : 뭘 자꾸 '맞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맞나'를 표준어

의 의미인 '____' 또는 '____'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_____으로 이해함.)('말하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오해를 했기 때문이야.'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물론 대화 주체의 성별이 _____ 것은 _____, 제시된 대화에서 소통이 원활히 되지 못한 이유는 성별적 요소와는 관련이 _____!)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나정 : 맞나?

철봉 : 하하하하하.

나정 : 니 지금 나 놀리는 기지?

(금년도에 이 대화를 활용하여 표준어와 방언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어!)

⑥ '춘향전'의 한 장면

[앞부분의 줄거리]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남원에 내려오던 이 도령은, 농부들을 만나 춘향에 대해 묻는다. 그들로부터 춘향이 정절을 지키느라 사또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지도 않은 다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 간다.

["저 농부 여보시오. 검은 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_____ 이 도령이 농부에게 _____을 사용함.)]([]:'_____와 '_____를 연관한 엉뚱한 질문)

농부가 대답하되

"그러기에 밝으라고 벗*(이 도령의 엉뚱한 질문에 _____ '벗'과 발음이 비슷한 '_____을 의미하는 '_____'을 활용하여 대답함.) 달았지요.(_____인 농부가 이 도령에게 _____을 사용함.)"

["벗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양반인 이 도령이 농부에게 낮춤말을 사용함.)]([]:농부의 _____를 활용한 대답을 _____하고 말장난을 이어가는 질문)('어사가 언어유희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아 언어유희는 당시 양반 계층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물론 이 도령이 농부의 재치 있는 답을 금방 이해하고 다시 말장난을 이어가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당대 _____들이 이와 같은 _____를 주로 사용했는지를 드러내지는 않아. 이처럼 언뜻 맞을 것 같지만, 제시된 글의 내용상 뚜렷하게 맞거나 아니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지는 항상 주의해야 해!)

"덧기에 성엷*(이 도령의 엉뚱한 질문에 _____인 농기구 '성에'와 '_____을 의미하는 '성에'를 활용하여 대답함.)장 달았지요.(상민인 농부가 이 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함.)"

["성엷장 달았으면 응당 차지?(양반인 이 도령이 농부에게 낮춤말을 사용함.)('어사는 농부에게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모두 사용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어.'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기서 '어사'는 이 도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선 알아둬야 하고, 이 도령이 하는 말은 이 부분까지만 드러나는데 보면 계속해서 _____만 사용하고 있지? 따라서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_____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돼!)]([]:농부의 _____를 활용한 대답을 _____하고 말장난을 이어가는 질문)

"차기에 소에게 양지머리*(이 도령의 엉뚱한 질문에 동음이의어인 소의 _____ '양지머리'와 '_____을 의미하는 '_____'를 활용하여 대답함.)('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응수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농기구나 소의 신체로서 풀어져 있는 의미 말고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우선 '컴컴하지 아니한지?'에 대해 농기구 '벗'을 통해 답한 것은 '벗'이 발음상 _____을 의미하는 '_____'과 비슷하다는 것 노린 대답이야. '더우려니?'는 별이 쬐면 더워지는 현상을 활용한 질문이고, 이에 대해 농기구 '성에'를 통해 답한 것은 _____를 의미하는 동음이의어 '_____'를 활용한 대답이야. '차지?'는 성에로 인해 차갑지

않은지를 묻는 질문이고, 이에 대해 소의 신체 '양지머리'를 통해 답한 것은 _____ 을 의미하는 동음이의어 '_____'를 활용한 대답이야. 각 단어가 어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어휘 공부(뒷받침되어야겠지?) 있지요. (상민인 농부가 이 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함.)"

이렇듯 수작(_____)할 때, 한 농부가 달려들며 이르되

"우스운 자식 다 보겠다. [얻어먹는 비렁뱅이 (한 농부가 이 도령에게 _____ 를 낸 _____, 이 도령을 _____ 이 아닌 _____로 여김.) 녀석이 반말 짓거리가 웬일인고?] ([]:나이가 _____ 거지가 나이가 많은 농부에게 _____ 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났음.) 저런 녀석은 근중(斤重)*을 알게 (문맥상 _____ 을 의미함.) 혀를 뿌리째 빨까 보다."

그중의 늙은 농부가 달려들며 말하기를

"아서라, 애, 그런 말 마라. 그분(_____)을 자세히 뜯어보니, 물골은 비록 허술하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 (늙은 농부가 _____ 을 한 이 도령에게 _____ 을 사용한 이유)(‘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 질서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다르게 사용된 것 같아.’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기서 단순한 나이로만 따지면 아마도 ‘늙은 농부 > 한 농부 > 이 도령’ 순서가 될 거야. 그렇지만 이 도령은 농부들보다 높은 신분인 양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늙은 농부도 이 도령을 양반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어린 이 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도포 자락이 아주 맹물은 아니로다. (초라한 물골이지만 은근한 _____ 이 느껴짐.) 저런 사람이 어사(조선 시대에, 임금의 특명을 받아 _____ 의 처적과 비위를 _____ 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 같아서 무서우니라."

* 벗: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솟조각.

*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 양지머리: 1. 소의 가슴에 붙은 뼈와 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쟁기 술의 둥글고 삐죽한 우두머리 끝.

* 근중: 언행 등이 무게가 있음.

(매년 이 대화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데,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_____ 을 _____ 사회라는 당대 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_____ 를 활용한 질문과 대답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

고1국어
신사고

4(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방언의 개념과 특징

개념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종류	(1) 지역 방언 :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 (2) 사회 방언 : 언어 공동체에서 세대,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

2.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듣고 말하는 내용, 표현이나 말투, 상호 작용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남.	
내용	시사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음.
표현	정중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의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음.
상호 작용 방식	듣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음.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

기질 성향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듣기·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음.
+	
성장 과정	개인의 성장 과정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 말투가 달라질 수 있음.

4. 집단적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

세대	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화제, 사용하는 어휘, 표현 등이 서로 다름.
+	
성별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 말투, 표현, 억양 등이 서로 다름.
+	
지역	지역 간에 어휘, 억양 등에 차이가 있음.

**고1국어
신사고**

4(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 내신암기 문제 TEST 1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방언의 개념과 특징

개념	한 언□에서, 사용 지□ 또는 사회 계□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종류	(1) 지□ 방언 :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 (2) 사□ 방언 : 언어 공동체에서 세대, 성□, 계□, 직□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

2.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듣고 말하는 내□, 표□이나 말□, 상호 작용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남.	
내용	시□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상□□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음.
표현	정중□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음.
상호 작용 방식	듣□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음.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

기질 성향
개인의 기□이나 성□에 따라 듣기·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음.
+
성장 과정
개인의 성□ 과□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 말투가 달라질 수 있음.

4. 집단적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

세대
세□에 따라 선호하는 화□, 사용하는 어□, 표□ 등이 서로 다름.
+
성별
남□과 여□이 사용하는 어휘, 말투, 표현, 억양 등이 서로 다름.
+
지역
지역 간에 어□, 억□ 등에 차이가 있음.

**고1국어
신사고**

4(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 내신암기 문제 TEST 2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방언의 개념과 특징

개념	한 □□에서, 사용 □□ 또는 사회 □□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종류	(1) □□ 방언 :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 (2) □□ 방언 : 언어 공동체에서 세대, □□, □□, □□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

2.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

듣고 말하는 □□, □□이나 □□, 상호 작용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남.	
내용	□□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음.
표현	□□□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음.
상호 작용 방식	□□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음.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

기질 성향	개인의 □□이나 □□에 따라 듣기·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음.
+	
성장 과정	개인의 □□ □□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 말투가 달라질 수 있음.

4. 집단적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

세대	□□에 따라 선호하는 □□, 사용하는 □□, □□ 등이 서로 다름.
+	
성별	□□과 □□이 사용하는 어휘, 말투, 표현, 억양 등이 서로 다름.
+	
지역	지역 간에 □□, □□ 등에 차이가 있음.